

국가자본주의론이란 무엇인가? - 트로츠키

○○

소련이 국가자본주의 체제인가?

사람들은 종종 익숙하지 못한 현상들에 대해 익숙한 용어를 사용해 곤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소련을 "국가자본주의" 체제라고 부르면서 이 체제가 드러내고 있는 미지의 현상들을 감추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아무도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점(利點)을 가지고 있다 원래 이 용어는 부르주아 국가가 운송수단이나 기업들을 직접 운영할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가리키기 위해 등장했다 이 조치들은 생산력이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능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본주의가 현실에서 부분적으로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미 없어졌어야 할 자본주의 체제가 자신을 부정하는 요소와 함께 계속 존재하고 있다.

물론 자본가 계급 전체가 주식회사를 구성하여 국가를 수단으로 일국경제 전체를 운영하는 상황을 구상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 체제의 경제 법칙에는 조금의 수수께끼도 없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자본가는 자기 회사 노동자가 창출한 잉여가치를 직접 이윤으로 취하지 않는다 다만 일국 경제 전체에서 창출된 총잉여가치 중 자신의 자본 크기에 비례하는 만큼의 잉여가치를 취할 뿐이다. "국가자본주의"가 경제 전체를 지배할 경우 이 이윤균등분배 법칙은 자본들간의 경쟁이라는 우회로가 아니라 국가 회계라는 방식을 통해 직접 그리고 즉시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지금까지 존재해 본 적이 없으며 자본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심대한 모순 때문에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더욱이 국가가 자본주의 소유형태의 보편적 담지자가 되면 사회혁명의 대단히 매력적인 대상이 될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그리고 특히 파시즘 경제가 실험되고 있는 동안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국가의 개입 및 통제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프랑스인들은 이것에 대해 국가주의(etatism)라는 더 적당한 용어를 쓰고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국가자본주의와 "국가주의(state-ism)"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체제로 보면 이 둘은 동일하기보다는 정반대의 존재이다 국가자본주의는 사적 소유를 국가 소유가 대체했다는 의미이며 바로 이 때문에 부분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한편 국가주의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미국의 루즈벨트, 프랑스의 블룸 등 어디에서 누가 실시하던 사적 소유를 보존하기 위해 사적 소유에 기초하여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이 어떻든 국가주의는 부패하는 자본주의의 손실을 강자로부터 약자에게 필연적으로 전가한다 국가주의는 대자본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정도까지만 소자본을 완벽한 파산으로부터 "구출한다". 국가주의의 계획경제 조치들은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소유에 반란을 일으키는 생산력을 희생하면서 사적 소유를 보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가주의는 기술수준의 발전에 제동을 걸고 생존능력이 없는 기업을 희생시키면서 기생적인 사회계층을 영구히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주의는 완전히 반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솔리니가 한 말이 있다: "이탈리아 경제의 4분의 3은 국가의 손에 장악되어 있다." (1934년 5월 26일) 그러나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 필요는 없다 파시즘 국가는 기업의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들 사이의 중개자에 불과하다 양자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이탈리아의 『인민』지는 이 주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조합주의 국가(corporative state)는 경제를 관리하고 통합할 뿐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다 이 체제는 생산을 독점할 경우 집단주의 체제에 지나지 않는다." (1936년 6월 11일)

농민과 소자본가 일반에 대해서 파시즘 관료집단은 하인을 협박하는 주인과 같이 군다 그러나 대자본가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사의 태도를 취한다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자 페로치(Feroci)는 올바르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조합주의 국가는 독점자본의 점원에 지나지 않는다..... 무솔리니는 기업의 위협부담을 전부 지면서 착취의 결과 발생하는 이윤은 자본가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히틀러 역시 무솔리니의 행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파시즘 국가는 대자본가 계급의 지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경제의 실제 내용 뿐 아니라 원칙은 뚜렷이 한계가 그어져 있다 이 체제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이해를 위해 사회 전체를 착취한다 무솔리니는 이렇게 자랑한다: "내가 이탈리아에서 국가자본주의나 국가사회주의를 원한다면 필요하고 적절한 객관적 조건들은 전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 즉 자본가계급 전체의 생산수단 전부를 국가는 아직 몰수하지 않았다 이 조건을 실현하려면 파시즘은 계급투쟁의 바리케이드에서 노동자 편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 이것은 무솔리니가 한 말이다 물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본가 계급의 생산수단을 전부 몰수하는 일은 다른 사회 세력, 다른 지도자, 다른 중핵들을 필요로 한다.

생산수단을 국가의 손에 쥐어준 첫 역사적 경험은 사회혁명을 성취한 노동계급에 의해 현실로 나타났다 국가에게 생산수단을 위탁하여 자본가 계급이 실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 간단한 분석을 통해 소련을 자본주의적 국가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가가 충분히 드러났다 전자는 진보적이며 후자는 반동적이다.

<배반당한 혁명>